



6차 산업에 공동체 회복을 위한 '무주만의 7차 산업화' 추진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군이 그 기반이 되고 있는 2017 마을로 가는 '봄' 축제 운영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을로 가는 봄 축제 성과 '굿'

무주군, 농산물 직거래·체험·숙박 등 1억 3000여만원 매출 올려

6차 산업에 공동체 회복을 위한 '무주만의 7차 산업화' 추진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군이 그 기반이 되고 있는 2017 마을로 가는 '봄' 축제 운영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을로 가는 봄 축제는 3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관내 20개 마을에서 진행됐으며, 39일 간 6,315명이 방문해 농산물 직거래와 체험, 음식 판매, 숙박 등을 통해 1억 3천 여 만 원의 매출성과를 올렸다.

군에 따르면 매출비율은 숙박(37.7%), 농산물 직거래(32.8%), 음식 판매(18.6%), 체험(10.9%) 순으로 집계됐으며,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농촌체험프로그램과 시골음식, 마을인심, 숙박, 농산물 직거래 순으로 나타났다.

마을 만들기 사업소 김오수 농촌관광 담당은 "올해는 지난 봄 축제보다 참여 마을 수가 두배 이상으로 많아

지고 5월 초부터 운영했던 시기도 3월 말부터로 앞당기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며 "체험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에 비해 마을별 특성화와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보완해야 하고 마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득창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은 만큼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개최되는 각종 여름축제에 대비해 마을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마을로 가는 축제는 마을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마을공동체의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상품으로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농의 소득창출, 공동체 회복과 마을경쟁력을 키우는 자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2015년 8월 반딧불축제와 연계해 처음 시작(11개 마을 참여, 9일 간 3,500명 참가)된 마을로 가는 축제는 지난해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반딧불축제와 농·특산물대축제 등과 연계한 사계절 축제로 확대 돼 3만 8천여 명 방문에 5억 8천여만 원 매출 성과를 올렸다.

한편,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마을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은 그동안 △마을 만들기 전담 부서와 △(사)마을을 잇는 사람들(마을이 중심이 된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설립, △마을마다 양성을 위한 전문과정 운영, △마을 간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노력들을 기울여 왔으며 이와 함께 대표 메뉴 개발을 위한 진행해 각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접목해 기반을 튼 먹거리를 찾는 데 주력해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벼 농작물 재해보험 서두르세요”

장수군, 6월 9일 마감... 모내기 못한 농가에도 지급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고있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이 6월 9일에 마감될 예정이다.

장수군은 올해부터 주계약에 수확불능 보장을 신설해 정상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벼 보험상품을 내달 9일까지 판매하

는 만큼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벼는 자연재해나 화재뿐 아니라 특약으로 병충해(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피해도 보장하며, 기쁨으로 제때 모내기를 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군은 농가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

해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에서도 농가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 실질적인 농가부담 보험료는 약 5%이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1,619명으로 국비포함 32억 여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도 지역 내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최...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

장수군의회(의장 유기홍)는 24일 제 280회 임시회를 열고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장수군의회는 6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2017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에 대한 개선·시정 및 대안 제시 등 바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재만)를 구성하였으며, 이번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는 장수군내 27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현장 조사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이날 장수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선생님 등 80여명이 의회 체험활동을 위해 장수군의회를 방문하였는데 학생들은 안전별로 의결되는 회의 진행과정을 생생히 체험하였고, 80여명 각자의 생각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에게 바라는 점'을 제안서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유기홍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을 위해 항상 밝고 명랑하게 노력하며 아름답고 보람된 생활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깨닫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산림청,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다가오는 여름 장마철을 대비하여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한 복구 대응하기 위해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지난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산사태 예방·대응 행동 매뉴얼' 정비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마쳤으며, 상황 발생 시 긴급복구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시공하고 있는 사방벽 8개소, 계류보전 0.9km 사업을 위기 전 내달달일까지 완료해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장점검 나서

무주군은 관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한 군은 건축과 분뇨, 개발행위, 축산 등 유형별 10개 분야를 선정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 현장을 찾아 농가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분야별 컨설팅과 축산단체·농가·무진장축협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맞춤형 원스톱 행정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은 무허가 축사(226농가)를 규모에 따라 1단계 대상은 내년 3월 24일까지, 2단계 대상 2019년 3월 24까지, 3단계 대상은 오는 2024년 3월24일까지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농업소득과 이윤창출 축산담당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완화 규정이 적법화 추진 기간과 상관없이 내년 3월 24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정이 필요하다"며 "농가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적법화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난 23일에 공무원들과 함께 적상과 안성면 농가를 찾은 이태현 무주군부군수는 "적법화 가능 여부를 농가에서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무허가 적법화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 대응을 대상 농가에 배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과 대리발급을 통한 부정발급의 위험이 없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감 증명서 대비 발급률은 낮은 상황이나, 진안군의 적극적인 홍보로 지난 해 인감대비 발급률 10.3%를 달성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 홍보

진안군은 24일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회의자료 게재, 홍보 플래카드 제작, 금융기관 등 수요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고 발급을 받는 제도로, 인

감 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과 대리발급을 통한 부정발급의 위험이 없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감 증명서 대비 발급률은 낮은 상황이나, 진안군의 적극적인 홍보로 지난 해 인감대비 발급률 10.3%를 달성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성료

전북도와 진안군이 후원하고 전북도 상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24일 진안시장 특설무대에서 이항로 군수를 비롯한 박명석 군의장과 의원, 김현철 도의원, 하현수 전북도 상인연합회장, 유재수 진안시장상인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진안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열린 시장가요제는 초청가수의 축하공연과 함께 예선을 거쳐 선발된 12명의 노래경연과 함께 가스라이프, 자전거 등 푸짐한 경품행사를 내건 행운권 추첨행사도 이어져 행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미령면 보건소 직원들 일손부족 농가 돕기 나서

진안군 미령면(면장 조준열)과 보건소 직원 30여명은 24일 본격적인 고추재배 시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번 일손돕기는 기계와 작업이 어렵고 일시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고추심기와 지주목 세우는 작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조준열 면장은 "이번 농촌 일손돕기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적극적으로 일손돕기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眞心 眞心 홍삼주

19° 375ml

眞心 眞心 眞心 홍삼주

19° 375ml

眞心 眞心 眞心 홍삼주

19° 375ml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Quality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